

사랑하는 이근무목사님과 텍사스세계선교교회성도님들께,

케냐는 요즘 가장 더운 건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투르카나에는 먼지바람이 많이 일고 있고 몇몇 광야교회들은 목초지를 찾아 먼 곳으로 떠난 성도들의 빈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
1. 2월달에 개최된 **목회자 세미나**는 큰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.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열심을 다해 공부하는 모습에 저희들은 신이 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. 그룹마다 모자를 쓴 분들이 그룹리더입니다. 지난 번 일차 복음학교 때 미리 같은 교재로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번에 그룹의 리더로 섬겨주었습니다. 문자학습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3월과 4월에 **문자학습반**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. 주님께서 학습이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탄한 형편을 주셔서 학업에 집중하여 글을 깨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



2. 지난 해 초에 개척된 케냐오일교회의 나우르 목사는 14시간 사막과도 같은 길을 걸어 도착했습니다. 전날 밤 보이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타운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1시간을 걸어서 아침 6시에 도착을 했습니다. 피곤함을 무릅쓰고 열심히 공부하며 질문할 때마다 손을 들고 답하려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정답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들으며 목회자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.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를 위해 투르카나어로 된 오디오바이블을 선물했습니다.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성경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**오디오바이블**은 약40달러로 성경책보다 몇배 더 비싸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



3. 올해 투르카나에 **숙소동**을 건축하고자 합니다. 세미나 때마다 밖에서 잠을 자는 목회자들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고, 또 특별히 고아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꼭 숙소동 건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곳의 환경과 실정에 꼭 맞는 형태와 디자인으로,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.



4. 올해 4명의 **고아아이**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. 현재



저희들은 고등학생 7명, 초중등학생 44명, 유치원생 1명의 아이들과, 그 외 두 가정의 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돌카스양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보호자로 계셨던 할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. 다른 친척에게 양육을 부탁해 놓은 상태인데 주님께서 돌카스의 심령에 위로와 소망이 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이 아이들과 과부들, 후원자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.

5. 김경희선교사가 그 동안 틈나는 대로 방문하여 **티고니초등학교** 8학년 아이들과 복음을 나누었는데 아데마(김선교사 옆)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집이 먼데다 불신 가정이어서 교회출석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. 아데마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가족들-가정을 버린 알코올중독자 아버지를 포함해서-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



6. 대덕목양교회에서 지원한 **책걸상**을 나코리옹오라교회에 전달했습니다.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한번에 들어오는 것은 기적이라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. 처음으로 앉아보는 책걸상을 통해 보다 즐겁고 편한 수업이 되리라 믿습니다.



<기대에 찬 아이들>



<처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>

7. **나레와미선베이스**를 관리하는 아수로이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번에 딸(아내 예명을 따라 바이올라)을 출산했습니다. 주님께서 아수로이목사와 그 가족들에게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


함께 투르카나 사역을 감당해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

케냐에서 윤승주, 김경희 드림 (asanteyun@hanmail.net)